

초대의 글	4
제1부 연합예배 순서	5
제2부 주제별 대화 시간	8
제1주제 발제문	9
교회의 직분·목사와 장로의 직분 그리고 만인 제사장주의 조석민(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제2주제 발제문	21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박성진(무지개교회 목사)	
제3주제 발제문	26
함께 세워 가는 교회 최우돈(너머서교회 장로)	
제4주제 발제문	35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정성규(예인교회 목사)	
<부록>	
개혁교회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공동체들	42
예배 찬양 악보	45
세미나 공간 안내	48

초대의 글

개혁교회네트워크, 제6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개최

최근 기독교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세미나는 불신자는 차치하고라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현상,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대형 교회로 숨어 들어가서 등록 없이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되어 ‘한국교회의 문제와 그 대안을 찾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6년 전 부천 예인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올해도 ‘개혁교회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너머서교회’와 ‘행전교회’가 주관하는 제6회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세미나가 5월 22일 일산 중산초등학교 5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개혁교회 네트워크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 ‘건물 중심의 교회로부터 탈피’, ‘민주적 교회 운영’, ‘재정의 투명성’, ‘세상과의 소통’, ‘이원론적 신앙의 배제’ 등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의 연대 기구로서 현재 12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는 ‘교회다운 교회를 향한 여정’으로, 오전 11시 연합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주 강사인 손봉호 장로(고신대 석좌교수)가 설교하며, 여기에서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는 주제별로 4개 분과로 나누어 분야별 발제와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 동 세미나가 진행된다. 현장에는 개혁을 지향하는 일부 교회들의 부스가 설치되고, 신앙 서적을 판매하는 코너도 설치될 예정이다. 참석자는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각 분과별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분과별 주제와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 **제1분과**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 : 조석민 교수(에스라성경대학원)
- **제2분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 박성진 목사(무지개 교회)
- **제3분과** 함께 세워 가는 교회 : 최우돈 장로(개혁교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제4분과**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 정성규 목사(부천 예인교회)

주최측에서는 특별히 출석할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는 분들,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좀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회에 충성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형 교회에서 익명으로 예배에만 참석하고 있는 분들, 현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 하며 함께 토론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2011년 5월 22일

최우돈 장로(개혁교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제1부 : 연합 예배

2011년 5월 22일 오전 11시 인도 : 안해용 목사(너머서교회) 설교 : 손봉호 장로(고신대 석좌교수)

경배와 찬양 / 인도 - 임원우집사(행전교회)

입례송 / 다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팔을 드셨네
<후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불 때까지.

참회로의 부름 / 인도자

참회의 기도 / 다같이

용서의 확신 / 요한1서 1장 9절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목양기도 / 한진용 장로(디딤돌교회)

신약봉독(1) / 사도행전 11장 19~30절 / 장영미집사

신약봉독(2) / 사도행전 13장 1~3절 / 차민서

설교 / 안디옥교회(손봉호장로)

결단의 기도 / 설교자

봉헌 / 황현빈

봉헌특송 / 우장식(행전교회)

봉헌기도 / 인도자

성만찬 / 성찬위원(안해용 · 김승지 · 최우돈 · 우종욱)

(1) 성만찬의 의미 / 인도자

(2) 성찬송 / 다같이

(다같이) 예수께서 달리시던 밤에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시고 잔을 채워 저들에게 주시며
나의 몸과 나의 피니 기억하라
(여 성)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괴롭게 싸여 기도하셨네
(남 성)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이 고통 거두어주소서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다같이) 들으소서.
(다같이) 의심과 고뇌에 빠진 밤에 내 맘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몸과 피를 내게 주시며 갯세마네 기도 들려 주시니
주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 주를 기억하라
(간 주) 기억하라

(3) 성령입재의 기원 / 인도자와 회중

인도자 :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거룩케 하시고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인도자 :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위에 함께 하사,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옵소서

다같이 :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인도자 : 이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속으로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4) 성찬으로 초대 / 인도자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5) 성만찬 / 다같이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나와서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두 손으로 떡을 받고 포도주에 찍어서 먹습니다. 두 줄로 나오시고 기도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감사의 기도 / 인도자

(7) 평화의 인사

목사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중 : 또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파송과 축도

교회소식 / 최우돈장로(개혁교회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1.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손봉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학교 건물을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아이들이 사용해야 할 장소이기에 깨끗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점심은 간단하게 김밥과 떡,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점심을 먹으면서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전액 '좋은벗'을 통하여 북한에 지원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점심시간은 2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스에 설치된 기관과 교회들을 소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오후 2까지 다시 강당으로 모여서 세미나에 대한 소개 및 개혁교회 네트워크 교회에 대해 소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7. 주제별 대화 시간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장소(5층)	소주제	발제 / 진행자
제1주제	체육실	차별을 넘어서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	조석민 교수 / 안혜웅목사
제2주제	디딤돌공부방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박성진 목사 / 황영수집사
제3주제	강당	함께 세워가는 교회	최우돈 장로 / 이진오목사
제4주제	영어전담실	성도,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정성규 목사 / 김승지목사

8. 불편한 점과 문의 사항이 있으면 본부석에 오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 부흥(다같이 일어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축 도 / 방인성목사(함께여는교회)

너머서 송 / 다같이

※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 주제별 대화 시간

2부 : (오후2:30 ~ 4:00)

제1주제 : 차별을 넘어서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발제: 조석민, 진행: 안혜웅)

교회의 바람직한 직분에 대한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만인제사장주의적인 입장에서 직분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함께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2주제 :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발제: 박성진, 진행: 황영수)

오늘날 모이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교회 성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의미로 모이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모여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간의 친밀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교회에서 흠어지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흠어지는 교회의 개념은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처럼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제3주제 : 함께 세워가는 교회(발제: 최우돈, 진행: 이진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목회자의 제왕적인 권한 행사로 인해 실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회는 일반성도와 목회자는 평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이것이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런 입장의 전제로 교회의 운영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만인제사장적인 개혁교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를 위해서는 교회의 정관이 필요하고, 목회와 운영의 분리가 필요하고, 직분의 임기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 토론하고 나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4주제 : 성도,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발제: 정성규, 진행: 김승지)

소통이라는 주제는 신앙의 삶속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소통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구원은 이런 단절에서 소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통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함께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분	제1주제	제2주제	제3주제	제4주제
장소	체육실	디딤돌공부방	강당(예배당)	영어전담실

교회의 직분

-목사와 장로의 직분 그리고 만인 제사장주의-

조석민(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신약학 교수)

이 글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교회의 직분과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두 직분을 다루는 것은 교회의 직분이 목사와 장로로 대표되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의 직분과 관련하여 만인 제사장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해당 성경본문을 통하여 재조명해 볼 것이다. 목사와 소위 일반성도 또는 평신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두 가지 논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의 상황을 교회의 직분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갈 것이다.

한국교회의 직분은 몇 가지인가?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 그리고 전도사와 교단에 따라 명칭에 차이가 있지만 목사 안수받기 직전의 직분이 있다. 이들을 강도사 또는 준목, 전도사로 호칭한다. 이 외에 서리집사, 사찰집사, 권찰, 구역장, 목자 등이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 교사는 직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선교사는 교회의 직분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장로를 영수로 부르기도 했고, 전도인, 권사인 이라는 직분도 있었다. 한국교회 초창기의 전도인은 오늘날 전도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권사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관매하기도 했지만 이 직분은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라졌다. 이런 직분 외에도 각 교회마다 복음 사역과 관련하여 직무를 맡기고 명칭을 부여하여 부르기도 한다.

한국교회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많은 직분들을 만들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일반성도들이 협력하도록 문을 개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직분들을 세워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이며, 오히려 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여러 직분들이 위계의 질서를 가지면서 그 위계질서 속에 직분의 차등이 생겨나게 한 것은 속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다. 교회 안에서 직분의 수직적 관계는 잘 형성되어서 질서 있게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분의 수평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교회가 계급적 구조를 갖게 된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다.

한국교회의 직분 개념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지며, 그래서 계급적 구조를 갖게 된 것인데, 그 원인과 이유를 알면 그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국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릇된 풍조가 있지만 그 가운데 권위주의와 성공주의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첫째, 권위주의의 뿌리는 샤머니즘과 유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권위주의가 한국의 군사독재문화 문화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샤머니즘에서 샤먼의 권위는 주술적 능력에 기초한다. 샤먼은 신의 능력을 조종하여 인간에게 현세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메카니즘적인 기술을 터득하고 소유한 자로 여겨진다. 이러한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한국 기독교는 능력 숭배와 능력에 따른 권위주의가 만연하다. 권위주의의 또 다른 뿌리는 유교다. 유교의 가부장적 서열의식은 교회 안에도 팽배하다. 유교의 영향아래 살아온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도 위계(hierarchy)와 질서(order), 신분과 직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둘째, 한국 기독교의 병폐는 성공주의다. 성공주의도 샤머니즘과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 통속적 의미에서 성공은 한 마디로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풍요와 다산을 골자로 하는 현세기복적인 샤머니즘 신앙과 입신양명이라는 유교적 영향의 연장선 위에 있다. 유교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름보다는 사회적 직위를 호칭하는 습관이 남아 있다. 특별한 사회적 직위가 없으면 성과 함께 선생, 님, 씨, 등으로 호칭한다. 교회의 직분도 이런 점에서 성공주의와 권위주의의 사상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샤머니즘과 유교는 현세적이며 힘 지향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샤머니즘은 능력을 지향하고, 유교는 권력을 지향한다. 권위주의와 성공주의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성공한 것이고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 교회의 직분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직분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직분인가? 한글 번역 신약성서에서 교회 직분을 의미하는 ‘장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레스뷰테로스’(presbu,teroj)이다.¹⁾ 영어 번역 성서에서 이 단어는 elder 또는 presbyter로 번역되었다. 신약성서에서 ‘프레스뷰테로스’의 사용은 모두 66회이다.²⁾ 이 헬라어 단어의 사용 빈도는 공관복음서에 24회, 요한문서에 15회, 사도행전에 18회, 바울서신에 5회, 공동서신에 4회가 각각 사용되었다. 하지만 신약성서의 ‘프레스뷰테로스’가 한글 번역 성서에서 항상 ‘장로’로 번역되지는 않았다(참조, 눅 15:25, 요 8:9). 이 단어가 교회의 직분을 의미하는 ‘장로’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이 단어가 나타나는 문맥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신약성서에서 ‘프레스뷰테로스’가 교회의 직분을 의미하는 ‘장로’로 사용된 것은 요한이서 1:1, 요한삼서 1:1, 사도행전 11:30, 14:23, 15:2·4·6·22·23, 16:4, 20:17, 21:18, 디모데전서 5:1·17·19, 디도서 1:5, 야고보서 5:14, 베드로전서 5:1·5에서 모두 19회 뿐이다.

1-1. 장로와 감독

1) BDAG, pp. 862~63을 보라.

2) 신약성서 밖에서 presbu,teroj의 사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Merkle, Elder and Overseer, pp. 30~43을 보라.

신약성서에 사용된 ‘장로’와 ‘감독’은 교회의 동일한 직분을 의미하는 동의어이며, 상호 교환 가능한 단어인가? 이 글은 신약성서 안에서 두 단어가 동일한 직분을 의미하는 동의어이며,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단어라는 전제를 갖고 시작한다. 이런 주장을 제기한 사람은 라이트푸트(J.B. Lightfoot)이다. 라이트푸트는 자신의 빌립보서 주석에서 장로(elder)와 감독(overseer)은 신약성서에서 동의어(同義語, synonymous)라고 주장했다.³⁾ 하지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견해를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한다. 새로운 제안의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목회서신에서 감독은 항상 단수이지만, 장로는 항상 복수로 사용된다. 예외적으로 장로의 단수 사용은 오직 디모테전서 5:19뿐이다. 특히, 교회의 직분을 의미하는 감독의 단수 사용은 디모테전서 3:8에 복수로 사용된 집사(deacons)와 대조적이다.
- (2) 디모테전서 3:2과 디도서 1:7의 감독은 헬라어 관사가 사용되어 여러 장로들 가운데 한 감독을 암시한다.
- (3) 가르치는 것은 모든 감독들의 의무이지만(참조, 딤후전 3:2, 딤후 1:9), 장로들은 몇몇 사람들만이 의무가 있다.
- (4) 감독과 집사들을 언급할 때 장로들은 언급이 없고, 장로들을 말할 때 감독과 집사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두 단어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 두 단어는 같은 문맥에서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두 단어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 (5) 아무도 전혀 두 다른 단어가 동일한 직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6) 2세기 군주적 주교(monarchical bishop)의 발전은 목회서신에서 이미 발견될 수 있는 초기 형태를 암시한다. 반면에 목회서신에서 소수의 사람들은 감독이 군주적 주교와 동일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제도의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인식할 것이다.
- (7) 목회서신은 개인적인 서신이지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디모테와 디도가 초기 형태의 군주적 주교로 묘사된 것이 의도적이라고 주장한다.
- (8) 대다수의 학자들은 목회서신의 진정성을 거부한다. 그래서 목회서신의 기록연대를 교회 역사 속에서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반 같이 늦은 연대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한다. 목회서신의 후기 연대는 교회가 보다 발전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⁴⁾

이 글에서 ‘장로’와 ‘감독’은 교회의 동일한 직분을 의미하는 동의어이며,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단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디도서 1:5-9(사역)에서 찾을 수 있다.

(5) 내가 너를 크레테(Crete)에 남겨 두었던 이유는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었다. (6) 그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7) 왜냐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자기

3) J.B. Lightfoot, St. Paul's Epistle to the Philippians (London: Macmillan, 1881), pp. 95-99, 181-269를 보라.

4) Merkle, Elder and Overseer, pp. 1-2.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 한다. (8) 오히려 [그 사람은] 손님을 잘 접대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자기 절제력이 있으며, (9)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디도서 1:7의 접속사 ‘가르’(gar, ‘왜냐하면’)는 디도서의 저자가 앞에서 언급한 “장로들”과 “감독”이 동일한 직분을 언급한 것이라는 암시이다.⁵⁾ 만일 본문에 언급된 감독이 앞에서 언급한 장로와 전혀 다른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헬라어 접속사 ‘가르’의 사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장로들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은 감독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접속사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마운스(W.D. Mounce)는 7절의 접속사 ‘가르’가 “논의를 연결시켜주고 감독이 장로와 구분된다는 주장을 반증한다. 장로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왜냐하면(gar -가르)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⁶⁾

둘째, 5절에서 복수로 사용된 ‘장로들’이 6절에서는 단수 대명사 ‘티스’(tij, ‘그 사람’)로 바뀌었고, 계속해서 7절은 6절의 단수 대명사 ‘티스’(tij, ‘그 사람’)를 단수 명사 ‘에피스코포스’(evpi,skopoj)로 바꾸어서 사용하며 그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5절의 “장로들”과 연결하고 있다. 또한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열거된 모든 각각의 내용들은 장로 또는 감독이 모두 각각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으로 자연스러운 묘사이다.⁷⁾

셋째, 바울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단수와 복수 명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특히 목회서신에서 복수와 단수의 변화가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면 바울은 디모테전서 2:8에서 남자를 복수(touj aindraj)로 언급하지만 같은 문맥 12절에서 단수(avndroj)로 표현한다. 디모테전서 2:9에서도 바울은 여자를 복수(gunai/kaj)로 말하지만 11절에서 단수(gunh)로 바꾸어서 언급한다. 이와 같은 예를 디모테전서 2:15, 5:1, 3-4, 11, 17, 20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넷째, 디도서 1:5-9과 디모테전서 3:1-7에 열거한 감독의 자격 조건은 동일한 자격 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디도서 1:7(dei/ gar ton evpi,skopon avne,gklhton ei=nai)과 디모테전서 3:2(dei/

5) 디모테전서 3:1에서 “감독”은 ‘에피스코포스’(evpi,skopoj)로 교회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 서신보다 늦은 연대인 1세기 말에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형태의 감독과 장로의 직책이 확립되지만, 이 서신에서는 두 직분의 차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이 서신에서 감독의 직무에 장로들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일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직분 사이에서 차이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6) W.D. Mounce, 『목회서신』 (Pastoral Epistles, WBC; Nashville: Thomas Nelson, 2000) (서울: 솔로몬, 2009), p. 789를 보라.

7) G. Fee, 1 and 2 Timothy, Titus (NIBC; Peabody: Hendrickson, 1984), p. 84; G.W. Knight, The Pastoral Epistle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2), pp. 176, 291; L.H. Marshall,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n collaboration with P.H. Towner; ICC; Edinburgh: T & T Clark, 1999), pp. 160, 178; Mounce, 『목회서신』 pp. 456-82, 788-92를 참조하라.

ou=n to.n evpi.skopon avnepi.lhmp-ton ei=nai), 디도서 1:6(mia/j gunaiko.j avnh,r)과 디모테전서 3:2(mia/j gunaiko.j a:ndra)은 동일한 자격 조건을 제시한다.⁸⁾

다섯째, 사도행전 20:17, 28의 경우 저자는 장로와 감독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한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의 사역을 칭찬한다. 바울은 그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evpiisko,pouj)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행 20:28)고 말하면서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른다.⁹⁾

요약하면, 디도서 1장에서 “장로”와 “감독”이 서로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5절, “내가 너를 그레테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프레스뷰테로스’, presbute,rouj)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와 7절의 “감독(‘에피스코포스’, evpi,skopoj)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디도서 1:5에서 “장로”를 언급했지만, 7절에서 이 호칭이 “감독”으로 바뀐 것은 장로와 감독의 직분이 서로 다른 직무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무임을 접속사 ‘가르’가 암시한다. 장로와 감독의 직분을 표현한 헬라어 단어에서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 역사 속에서 감독이란 직분이 장로들을 지도하는 또 다른 직책으로 변화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¹⁰⁾

1-2 장로의 자격 및 자질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신약성서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¹¹⁾ 장로는 다스리고, 인도하며,

8) H.W. Beyer, ‘evpi,skopoj’ in G. Kittel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10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64), II, pp. 608~20 (see, p. 617)을 보라.

9) 베드로전서 5:1-2에서도 장로와 감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 이와 같은 실례를 한국 장로교회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는 동일한 직분이면서도 직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 차이는 목사의 직무가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 설교와 성례,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을 직접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반면, 장로는 교회에서 목사와 함께 장로로 활동하지만 설교와 성례를 직접 인도하지 않고 교회 행정과 성도들을 권면하고 징계하는 일을 목사와 함께 담당한다. 하지만 장로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를 모두 동일한 장로 직분으로 이해하며 근본적인 자격상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다만 목사가 장로와는 달리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은사가 있기에 가르치는 장로로 이해하며, 이와 달리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로 이해한다. 이런 모습을 칼빈은 장로의 이중직제(duplicem ordinem)로 이해했다. 한국 장로교회는 대부분 장로와 목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이해를 갖고 있으며, 치리장로의 중요한 직무가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치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1) 신약성서에서 장로를 세울 때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어떻게 선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장로의 회에서 안

돌보고, 양을 치며, 진리를 지킬 뿐 아니라, 목양 사역을 책임 맡은 사람이다(참조. 딤후 5:17, 딤후 1:9, 행 11:30, 20:28, 뱌전 5:2). 이런 점에서 신약성서는 장로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또한 분명하게 제시한다(참조. 딤후 3:1~7, 5:17, 딤후 1:5~9). 신약성서는 장로의 직무와 관련하여 최소한 두 가지 자격 조건과 일반적인 자질을 제시한다. 이런 장로의 자격은 그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2-1. 지도력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장로의 첫째 자격은 지도력이다. 디모테전서 3:1~7과 디도서 1:6~9에서 교환하는 것은 장로가 되려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참조. 딤후 3:2, 딤후 1:6). 또한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참조. 딤후 3:4, 딤후 1:6). 그 이유는 디모테전서 3:5에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제시한다. 디모테전서 3:5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에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의 대가족과 같다는 암시를 준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장로는 한 가정의 가장(家長)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지도력이 있어서 가정을 잘 인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처럼 감독도 교회의 구성원을 잘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로의 자격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장로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적(性的)으로 정결해야 함을 암시한다(참조. 딤후 1:6). 다시 말해서 결혼생활에 충실하고 성적으로 정결을 지키는 것이 장로의 자격 조건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자격 조건의 배경에는 당시 그리스·로마 문화에서 빈번했던 이혼, 간통, 동성애, 등으로 인하여 부부의 정절이 훼손되거나, 금욕주의적 사상 속에서 결혼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참조. 고전 7:1~5).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장로는 가족에게 충실하고 성생활이 건강해야하며 결혼 생활에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1-2-2. 교육 능력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장로의 두 번째 자격은 가르치는 능력이다. 디모테전서 3:2에서 장로의 자질을 말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언급한 것은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임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보존하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로의 교육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공동체에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함의한다.

장로의 교육 능력에 대해서 디도서 1:9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감독의 역할을 하는 장로의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장로의 교육 능력은 먼저 자신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실천하며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장로는 가르치는 말씀에

수를 받았다는 것은 딤후 4:14에서 언급한다. 유사한 기록을 행 14:2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Mounce, 『목회서신』 pp. 596-99를 참조하라.

대한 신실함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신이 믿고 행하는 말씀이어야 가르침에도 확신이 있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자격은 장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1-2-3. 일반적 자질

장로의 두 가지 자격과 함께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자질들에 대하여 신약성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언급한다. 첫째, 장로가 갖추어야 할 긍정적인 자질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딤후 3:2)와 “관용하며”(딤후 3:3)에서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는 장로의 성품을 암시하는 것으로 인내의 성품과 분별력이 있어야 함, 그리고 존경할 만해야 하며 느그러운 배려와 융화적인 성격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장로의 자질 중에 부정적인 면에서 교훈하는 것은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딤후 3:4)라고 제시한 내용이다. 무절제한 폭음을 하는 사람은 장로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친다. 이것은 구약성서에서 제사장들이 알코올에 중독되는 것을 경고한 레위 전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참조, 레 10:8~11). 또한 폭력적인 사람과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어 싸움을 하며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지침이다. 장로의 자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품의 소유자는 일반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자질을 모두 갖추었다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디모데전서 3:6~7은 가르친다. 디모데전서 3:6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경고한다. 다시 말해서 입교한 기간이 얼마 되는 젊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장로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온전히 뿌리를 내렸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면 갑자기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사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로의 또 다른 자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3:7에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고 가르친다. 그 이유는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는 가르침에 잘 드러난다. 교회 공동체 밖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 수준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장로는 이런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교회의 장로가 자신의 행위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곧 교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신약성서 그 중에서도 디모데전서 3:1~7과 디도서 1:5~9에서 가르치는 장로의 자격은 무엇보다 먼저 지도력과 가르치는 교육 능력을 제시한다. 바울은 이런 두 가지 장로의 능력과 함께 윤리 도덕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장로는 가정을 돌보며 가정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는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4. 장로의 사역

1-2-4-1. 성서 교육

장로의 자격을 가르치는 신약성서 가운데 디모데전서 3:1~7과 디도서 1:5~9에서 바울은 장로의 지도력과 함께 가르치는 능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장로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신구약성서이다.

바울은 디도서 1:9에서 장로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장로의 가르치는 사역을 강조하고 있다. 신실한 말씀을 가르치며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일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일이 장로의 사역이라고 가르친다. 9절에서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장로는 이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장로의 가르치는 일에는 장로가 성도들에게 성서를 가르치며 예배 중에 설교하는 일이 포함된다.¹²⁾

사도행전 20:17~35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 자리에서 그들의 가르치는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이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하면서 자신은 욕심 없이 겸손하게 일했으며(참조, 행 20:19, 26, 33~35),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말한다(참조, 행 20:20~21, 27, 31).

1-2-4-2. 목양(牧羊) 사역

장로의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목양 사역은 장로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이다. 베드로전서 5:1은 장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뿐 만 아니라 삶 속에서 사역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한 사람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5:2은 장로의 사역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가르친다. 장로의 사역을 양 떼를 돌보는 것으로 비유하여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양떼와 같다는 암시이다.

이와 같이 장로로서 양 떼와 같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5:2~3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양 떼를 돌보는 사역을 하라고 가르친다. 더욱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이런 사역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양 떼를 치는 사역과 관련하여 장로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 “양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3)고 가르친다.

야고보서는 장로의 사역 가운데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언급한다. 야고보서 5:14, “너

12) 현재 한국 교회는 장로의 가르치는 사역의 하나로 예배 중에 설교 사역을 맡은 사람을 목사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회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프레스비테루스 테스 에클레시아스’, presbute,rouj th/j evikdhsi,aj)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에서 장로의 사역을 분명히 말한다. 병자들을 돕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들의 요청과 함께 그들에게 기쁨을 바르고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이런 사역 역시 장로의 목양 사역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장로의 목양사역은 상담자, 위로자, 양육자의 모습으로 비유될 수도 있다. 이런 호칭과 관련하여 장로의 사역은 매우 다양하게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가르치는 사역이며, 이 일을 위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보살피며 인도하는 목양사역임을 알 수 있다.

2. 만인 제사장주의(벤전 2:9-10; 제1:6; 5:10; 20:6; 롬 15:16)

만인 제사장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교회론에서 가르쳤고, 현재까지 모든 개신교의 교회론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가 되었다. 만인 제사장주의를 정의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직접 대면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이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핵심적인 이론이다. 이에 따라 성경에 대한 만인의 자유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천주교와 확실한 구분이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교회 안에서 만인 제사장주의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서로 대척하게 되었다. 목사 중심의 개교회(個敎會)로 변질한 한국 교회는 실제로 만인 제사장주의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루터의 가르침은 베드로전서 2:4~10에 근거하여 가르친 교훈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10절이 핵심이다.

베드로전서 2: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9~10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과연 루터가 근거로 제시한 본문은 만인 제사장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베드로서신의 본문은 단순히 앞에서 정의한 만인 제사장주의를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베드로서신의 본문의 구조와 문맥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2:4~10은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선택이란 주제가 본문에서는 제사장보다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베드로전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출애굽기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으로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언급했을 때, 이것은 개인을 지칭하기 보다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베드로전서 2:5과 9~10은 제사장이 되는 믿는 자들의 세례나 안수 또는 성별을 언급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나라와 제사장”이란 표현은 개인적인 언급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적용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5:10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도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처럼 살도록 격려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지를 베드로서신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베드로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공동체를 바울 서신에서처럼 몸으로 비유하는 은유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교회 공동체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 비유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인한 위업을 선포하는 의무가 있음을 지적한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9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을 로마서 15:16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언급하며 자신에게 적용한다.

로마서 15: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말하려는 것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면서 의도하였던 “이스라엘”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새 이스라엘”이 된 것으로 말한다.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지만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은 제사

장이다. 믿는 자들의 제사장적 활동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베드로 서신의 본문은 다른 책임들 예를 들면 당시의 로마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만인 제사장주의는 루터가 처음 가르쳤던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을 언급했을 때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제사장의 제의적 기능이다. 또한 제사장은 신분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구약성서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을 배경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공동체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본문에서 교회의 직분을 고려하여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성서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과는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울은 이런 의미를 로마서 12:1~2에서 가르치고 있다.

로마서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베드로 서신을 근거로 만인 제사장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본문의 문맥을 무시한 지나친 해석이다. 베드로 서신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삶을 강조하는 것이다.

요약 및 결론

현재 한국 교회의 형편은 권위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 안의 직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성공한 것이고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회의 직분과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위계와 질서를 차이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직분은 신분의 상승과 관련이 없다. 교회의 직분은 위계가 아니라 질서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은 목사와 장로로 대표될 수 있다. 목사는 소위 성직자로 분류하여 이해하고, 장로는 일반성도들의 대표자로 분류하여 이해한다. 하지만 성경은 목사와 장로가 동일 직분임을 가르치고 있다. 교회가 조직화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와 장로가 서로 다른 직분과 기능이 주어졌을 뿐이다. 성경에 의하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동일한 직분이다. 단지 그 이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목사도 이런 점에서 하나의 성도이다. 성도로 목사의 기능을 책임 맡고 있는 것이다.

만인 제사장주의는 루터에 의하여 주장되어졌지만 루터는 베드로전서 2:14~10의 의미를 올바

로 이해하지 못하고 카톨릭교회의 사제직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각 개인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집합적으로 언급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가르침이다. 교회의 직분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전서의 가르침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 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처럼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2)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 (3)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헌신된 일꾼으로 사역할 의무와 책임 그리고 특권이 주어져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박성진(무지개교회 목사)

머리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교회를 꿈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롬 12:5, 고전 6:15, 고전 12:12~27, 골 1:18, 골 1:24, 엡 1:22, 엡 4:15, 엡 4:16, 엡 5:23, 엡 5:30)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건강성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필자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건강한 교회에 관하여 말하려고 한다.

1. 모이는 교회

1-1. 모이는 교회에 대한 오해

흔히 전도를 강조하거나 총동원 전도 주일이 되면 목사들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을(눅 14: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본문으로 설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명은 사방으로 나가 강권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다. 이번 총동원전도 주일에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워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교인의 수를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초청에 참석하지 않는 교만함을 질타하심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이는 교회의 오해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교회,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강권하여 사람들을 교회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의 자리에 앉히는 이들이 칭찬 받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들은 여기저기 다니며 자신이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자리에 앉혀 놓았노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교회의 목사들은 자신의 교회에도 수백 또는 수천 명을 불러 모을 인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이러한 오해 아래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길을 오가다 만나도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성도들이 수만 아니 수십만이 되어야 하고, 커지지 위하여, 너무 커져서 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하고, 수십억 원의 자본들이 오고가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수 억원하는 자동차와 수십억 원하는 고급주택에 사는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라 인정 받는 교회. 이러한 모이는 교회의 오해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여 국교화 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공식적이지는 못하였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각지에는 삶을 함께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들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세력화 되지도, 공식화 되지도 않았지만 그 뿌리는 더욱 깊어져가고 즐기마다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하였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었다.(요 15:4~5)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A.D.313년 콘스탄틴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어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써 교회공동체의 오해는 시작되었다.

로마정부는 이곳저곳에 큰 성전, 소위 바실리아를 건축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였다. 아마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기도 용의했을 것이다. 또한 사제를 임명하여 예배의 진행과 성례전의 집례를 독점하게 하였다.

오늘날 목사들의 권력화와 교회의 대형화의 뿌리는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실의 교회는 자본주의라는 ‘쇠우리 안’에 갇혀(이는 막스 베버의 표현이다. 그는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칼빈의 직업소명설과 청교도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에서 시작한 자본주의에 인간들이 간혀버렸다고 지적한다.) 함께 나누고 함께 소유하기 보다는 자본의 투자를 통하여 더욱 거대화함을 교회의 목적으로 삼는다. 교회 재정의 대부분은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구제에 있기보다는 건물의 신축이나, 인건비, 선교비(드러내기 위한)에 사용되고 있다.

1-2 모이는 교회의 회복

영어에서 말하는 ‘교회’(Church)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희랍어의 교회인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벤전 2:9)이라는 의미이다. 두 의미를 합하여보면 ‘교회’는 ‘주님께 불러냄을 받은, 주님께 속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 한곳에 모여 기도에 힘쓰던 그들(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 성령의 임함은 단지 그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신비한 은사를 경험하게 한데서 그

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한다.(행 2:44~47, 4:31~37)

사도행전에서의 공동체는 때가 되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한 식구(食口)가 되었다는 말이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소유를 공유하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들의 식사시간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이었고, 그들이 모여 삶을 나누는 설교시간이었으며, 그들이 모여 노래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었다.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은 내 아이, 네 아이가 없이 모두의 아이들이었으며,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었다. 그들의 삶은 예배였고, 그들은 한 몸이었다.

한 몸된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공급되는 영양분을 받아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따라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다.(골 2:19)

이제 우리는 ‘더’를 지양하여야 한다.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다. 얼마나 크냐가 아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한 몸을 이루었느냐이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느냐이다.

모이는 교회는 제도와 예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가족이 아침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애를 쓰고, 저녁이 되어 한 지붕 아래 모여 서로 하루의 삶을 위로하고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며,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가족 공동체로서의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단순히 모여서 성경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소그룹이 아닌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본이라는 거대악의 벽을 뛰어넘어 소유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야 한다. 근래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의 복지논쟁은 정략적이기에 실질적으로 보편 복지의 수준에 까지 이르는 힘들다. (약 2:14~18, 행 6:1~6, 9:36, 10:1~4, 11:27~30, 고후 8~9장, 고전 16:1~4)

2. 흠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려면 모이는 교회의 회복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의문을 가져본다. 왜 하나님은 거대 왕국을 이룬 애굽이나 앗수르 바벨론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인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며 지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다시 흠어시고 하는 일을 반복하신다. 가나안에도, 애굽에도, 앗수르에도, 바벨론에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

예수께서도 지상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하늘로 오르시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흠어지기를 명령하셨다.

모이는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흠어지는 교회이다. 만일 건강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마치 그들이 수도원의 높은 담 안에서 그들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신음하는 세상이나, 세상속에서 무너져가는 교회에 무관심하다면 그 건강성은 의심해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안에 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다. 끊임없이 세상을 변혁하며 마치 누룩과 같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

2-1.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흠어지는 교회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세상을 살아감을 뜻한다. 시민은 자신만의 이기스러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론하고, 참여하는 이를 말한다.

다시 말해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다 세상속으로 들어가 여전히 그 편견을 가지고 이기스러운 생각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배타성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어떤 중심점을 계기로 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초월하여 세상속에서 새로운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소금과 빛의 삶은 교회의 삶이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세상의 교회이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가 손잡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다.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세상을 변혁하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속에서 종교, 인종, 전통의 벽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살아가야 한다(초월과 저항, 연대를 통하여). 이러한 삶이 흠어지는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꼬리말

모이는 교회와 흠어지는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다. 모이는 교회는 밥상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함께 세워 가는 교회

최우돈(너머서교회 장로)

서 론

본 세미나는 5년 전 부천에 있는 예인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일명 : 가나안 성도), 또 ‘왜 대형 교회로 숨어들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지’(일명 : 익명화된 성도)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 원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문제와 그 대안을 찾아서 함께 토론하고 검증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왔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미나를 통하여 도출된 한국 교회의 병폐는 ① 왜곡된 성경 해석(기복주의, 성장 지상주의, 목사중심주의), ② 교회 운영에 목회자의 제왕적 권한 행사(건제 장치 없는 과도한 권한 집중, 사제주의), ③ 교회 성장 지상주의(목적에 따른 수단의 정당화)라는 결론 하에 그 해법과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세미나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②번의 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목회자 1인의 카리스마나, 몇 명의 중심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국 교회의 정치 구조 분석과 대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 대안은 “민주적 교회 운영”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오늘 발제의 제목인 “함께 세워 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양자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1. 함께 세워 가는 교회란?

(1) ‘함께’란?

‘함께’라는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여’라는 의미와 ‘동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참여’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민주주의’입니다.

‘동역’이란 말은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신앙용어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동역’의 모범은 성부·성자·성령의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민주’와 ‘동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평등’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2) 목회자(목사)와 평신도의 평등

통상 교회의 구성원을 우리는 관행적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관행대로 오늘은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의 제목인 ‘함께 세워 가는 교회’란 ‘목회자’와 ‘평신도’가 평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한 상에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성례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단순히 날을 정해놓고 모이는 수준이 아닌 모든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영양을 공급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흠여지는 교회로 나간다. 세상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 삶과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뿌리 깊은 영성(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도움을 줄 책들

김두식, 「교회속의 세상 세상속의 교회」, 홍성사
백종국, 「바벨론에 사로 잡힌 교회」, 뉴스 앤 조이
신광은, 「메가처치 논박」, 도서출판 정인
육성호, 「내가 꿈꾸는 교회」, 부흥과 개혁사
유성준, 「세이버 교회」, 평단
이태형, 「배부르리라」, 좋은생각
한완상, 「예수 없는 예수 교회」, 김영사

빈센트 브래닉, 홍인규 옮김,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기독교 연합신문사.
데이브 브라우닝, 구미정 옮김,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옥당
필립 안시, 김동완 옮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요단 - 최근 IVP에서 재출판
존 스톱트, 신현기 옮김, 「살아있는 교회」, IVP
존 캅, 구미정 옮김, 「교회 다시 살리기」, 한국 기독교 연구소
로날드 사이더, 김선일 옮김,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IVP
프랭크 바이올라, 이영목 옮김, 「교회가 없다」, 대장간
하워드 스나이더, 권영석 옮김, 「참으로 해방된 교회」, IVP
루스 A.커터, 최요한 옮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교회」, 스텝스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이 양자가 평등이 아니라 상하 관계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비성서적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목회자와 평신도는 주어진 직분과 역할이 다를 뿐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즉,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목회자(목사)와 평신도와의 동역

‘동역’이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 등 서로 가진 것을 함께 함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역’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동역’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 가는데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과연 진정한 동역 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함께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동역’은 아닙니다. 평등의 관계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상명하복’이지 ‘동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간에도 동일합니다. 교회 사역은 근본적으로 ‘동역’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2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란?

교회 운영에 있어서 한 사람에 의한 과도한 권한 집중에서 오는 한국 교회의 병폐를 치유하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참여’와 ‘동역’, 그리고 ‘평등’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교회 운영의 의사결정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민주적 교회 운영’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과거 박득훈 목사의 4회 동명 세미나 발제를 참고하고, 그 중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원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교회 정치

‘정치란 세속이나 있는 것이지 교회에 무슨 정치가 있는가’ 라고 생각 하는 분이 계시지도 모르겠지만 ‘교회 정치’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의사 결정과 집행 과정을 말합니다. 박득훈 목사는 교회 정치를 “교회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펼쳐가는 과정에서 ① 필요한 일꾼을 선정하고 권위를 배분 감독하며, ② 교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함으로써 교회 내의 효율적인 질서와, 정의로운 평화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2) 교회 정치에 대한 두 가지 견해

가. 신정주의

통상 ‘신정주의’ 정치를 ‘신본주의’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지만, 교회 정치와 관련한 정확한

표현은 ‘신정주의’입니다. 신정주의 정치란 신이 인간중에서 자신의 대리인을 세우시고, 그 대리인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정치 제도입니다. 구약, 즉 출애굽기, 사사기 시대 정치가 신정주의 정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사님들 중에 교회는 신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 운영에 독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도 독재자이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도 하나님 같이 완전하고 전능한 존재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족하고 오류가 많은 인간에게 적용하기에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 신정주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직접 계시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신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자신의 대리자를 더 이상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나. 민주주의

두 번째 주장은, 교회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라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민주 정치 체제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과, 현대 교회에서는 더 이상 신정 정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즉, 성경과 성령이 더 이상 사제나 목사 등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고 동등하게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정치 체제를 교회에 도입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3) 민주주의 정치의 교회 적용

가. 개혁신교와 민주주의 정치

통상 민주주의에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만, 우리 개혁신교회에도 민주주의와 유사한 3원칙이 있습니다. 제1원칙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의 정치 원리 제1조에 ‘양심의 자유’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주권에 대한 원칙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권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교인’이란 함은 장로나 목사뿐 아니라 모든 신도 전부를 말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만민 제사장주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사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개신교는 종교 개혁에서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이며, 서로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지위에 있어서는 동등하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개혁신교회는 대부분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장로교단이 대의 정치를 축으로 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개신교 교단입니다.

나. 초대교회와 민주주의 정치

초대교회의 정치 체제 역시 민주주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6절을 보면 일곱 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의 지도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집사 선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명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행 6:3) 선출은 성도들이 직접 하게 했습니다. 철저히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뽑았습니다(행 6:5).

또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와 관련한 예루살렘 공의회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칩니다.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칩니다(15:6~7). 그리고 베드로가 결론을 내니다(15:11). 이에 야고보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결론을 검증한 후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예입니다.

3. 교회 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이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이상과 뜻이 좋아도 그것을 담아내고 실현시킬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비판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또 이상적이기는 하나 실현성이 없는 대안은 하나 마나입니다. 또 제시된 대안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채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시되는 이 제도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실제로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운영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1) 민주적 정관(규약) 제정

가. 정관이란?

‘정관’이란 단어는 회사나 법인에서는 익숙한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관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회사나 법인에게 정관은 국가의 헌법과 같습니다. 정관에는 그 회사나 조직의 명칭부터 설립 목적이나, 조직 체계, 그리고 업무 집행에 대한 근본 규칙, 종사하는 사업과 종사할 사업의 종류와 내용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나 법인 설립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교회의 경우는 ‘정관’이란 말 대신에 ‘규약’이나 ‘협약’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정관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 핵심 가치, 그리고 교회 운영의 기본 틀을 제정하고 교회 구성원들 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교회의 실제 운영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관이 국가의 헌법이라면 시행세칙은 법률에 해당되겠지요.

나. 정관 제정시 유의점

교회 정관은 그 제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민주적’이란 말은 모든 교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고, 토론하고, 이견을 조정할 결과물로서 공동체 전체의 합의안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관은 충분한 상호 소통과 합의라는 과정을 거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기대 효과

계속 반복되지만 한국 교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병폐는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고 진단 한 바 있습니다. 교회가 민주적 정관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 내의 특정한 소수나 목사 개인의 카리스마를 통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던 교회의 운영을, 인치를 벗어나서 교회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인 합의에 의한 제도와 법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업무,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올 수 있는 실수와 폐해를 제도를 통하여 보완하고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이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상당 부분 인치를 극복하고 보완 할 수 있습니다. 개혁신교 자체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교회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이런 제도적 장치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결 기구인 각종 회의체들을 형식적인 통과 의결 기구로 격하시켜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회의체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참석자의 과반수’로 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 목회와 운영의 분리

가. 개요

‘목회와 운영의 분리’의 기본 개념은 ‘역할 분담을 통한 권한의 분산’입니다. 목회자는 목회 전문가로서 전문 분야인 목회(예배, 설교, 심방, 성례, 신앙 교육, 신앙 훈련 등)를 담당하고, 교회의 운영(예·결산, 헌금, 재정 집행 등과 교회당 운영, 건축, 구제, 선교, 목사의 선임 등)과 관련된 사항들은 교인 총회에서 선출한 각 분야의 운영위원들이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교회 사역에 목회와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동역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 목회와 운영의 분리 이유

첫째, 한국 교회의 현실 진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목회자가 행사하는 제왕적 권한, 즉 견제가 없는 과도한 권한 집중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와 권한의 남용을 가져옵니다. 당연히 한국 교회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둘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삼권 분립’ 제도를 운영합니다. 교회 역시 권한의 분산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저는 교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목적을 ‘견제와 균형’에 두기보다 ‘협력과 보완’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회와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목사의 제왕적 권한 행사에 따르는 폐해를 줄이고, 업무 스트레스도 경감시켜 주어 더욱더 충실한 생명 중심의 목양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는 부패나 권력의 남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런 제왕적 리더십이 사라지거나 공백이 생겼을 때 대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왕적 권위나, 개인적인 카리스마로 대형 교회를 이룬 1세대 목회자들의 은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는 자식들에게 세습까지 감행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의 경우, 목사와 교회 공동체는 공동 운명체로 특정 목사가 존재하지 않는 특정 교회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후계자 양성’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이 문제를 대비하지 못하면 한국 교회에는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 초대교회의 목회의 분리 모델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구제에서 소위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행 6:1). 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급속한 교회 성장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것이 목회와 섬김 봉사 업무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대판 목회와 교회 운영의 분리 모델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구제와 봉사를 담당할 일꾼을 선출하게 합니다. 이들이 초대교회 첫 일꾼 집사들입니다(행 6:5). 말씀은 사도들이, 구제는 집사가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다.

(3) 직분의 임기제 도입

가. 교회 종신 직분 제도의 개요

첫째 목사와 관련하여서는 ‘담임 목사 제도’입니다. 이것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정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도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교인들이 목사를 바꾸는 것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무슨 정년이 있나? 하나님이 그만 두라고 하실 때(사망)까지 해야지.” 하면서 한술 더 뜨십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회의 주권이 교인에게 있다는 개혁교회의 원칙과,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대표적인 기득권입니다

둘째 평신도와 관련하여서는 ‘직분의 계급화 현상’입니다. 직분이 섬김의 도구가 아니라 직분을 명예와 권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집착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한국 특유의 체면 문

화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역자에게 ‘담임 목사’ 제도가 있듯이 평신도에게는 정년을 보장하는 ‘항존 직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담임 목사 제도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종신 직분의 폐해

위임 목사 제도나 항존 직분 제도의 장점은 안정된 목회(교회)라는 것이지만, 장점에 비하여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안일과 메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인간을 깨어 있게 만듭니다. 메너리즘(타성)에 빠진다는 것은 개인이나 교회 조직에 가장 좋지 못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직분이 계급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정년 보장이나 종신 직분은 정치에 있어서 장기 집권과 같은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월이 권위를 만들어 주어, 초심을 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주의가 되거나 소통 부재의 옹고집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는 정년 보장을 넘어 별로 눈치 보지 않는 세습의 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다. 임기제 도입 목적 및 기대 효과

‘신임 투표’나 ‘임기제’나 같은 의미입니다. 혹자는 재신임 제도의 부정적 효과를 염려합니다. 신임 투표를 교회의 혼란을 부추겨 안정적인 목회가 힘들고, 재신임을 얻지 못한 당사자들이 받을 상처와 충격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잘못된면 구성원들 간에 반목과 알력을 가져올 우려도 있고, 혹시 이 제도가 목사나 항존 직분자들을 쫓아내는 별미로 삼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재신임 소리만 나와도 목사님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신임 투표나 임기제의 목적이 직분자들의 퇴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니려야만 합니다. 이 제도는 직분자들을 더욱 깨어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됩니다. 재신임을 통하여 직분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직분 수행에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당장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로 인하여 재신임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10% 내외로 보여집니다만, 퇴출 10% 이내에 들어가는 자질이라면 굳이 재신임 제도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제도 도입으로 구성원들의 의사를 통하여 현 퇴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의식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재신임 제도를 실천하여 자기 교회에 도입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4) 재정의 투명성 확보

가. 중요성

교회는 도덕성과 정직성이 생명이고 힘입니다. 교회의 힘은 건물이나, 교인 숫자나, 현금의 액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은 그 교회의 도덕성과 함께 민주적 운영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습니다. 교회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쉽게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교회의 재정 집행에서 개인적인 횡령이나 착복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신앙생활과 교회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개요

재정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름대로 정직성, 적법성, 접근성의 세 가지 측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직성이란 서두에 말한 것입니다. 횡령이나 착복이 없이 배정된 용처에, 배정된 금액이, 배정된 용도로 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성이란 재정 사용의 결정 과정이 전체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기구에서 적법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서 투명하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접근성이란 재정 집행의 결과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시로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어야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수입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금에 의해 조성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용처의 결정 역시도 밀실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야 하고, 그 결과도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보고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 교회는 재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주로 적법성과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상당부분 목회자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교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니 믿어야 하겠지만, 목사의 말 한마디에 교회 구성원 아무도 몰래 수억 원의 재정이 교회 선교 재정에서 목사 개인의 계좌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재정의 투명성 효과

재정의 투명성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제고해 줍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통하여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인 정신이 심어집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자산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통하여 자신이 드린 헌금이 낭비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믿음이 심어지면 교회는 헌금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재정은 숫자로 나타나는 그 교회의 방향과 철학입니다. 재정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재정을 통하여 교회를 알고, 재정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서로 간에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결 론

지금까지 한국 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짚고, 교역자와 평신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운영의 민주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4가지 제도의 도입

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도와 의식 개혁, 그리고 신앙 성숙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제도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결국은 그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 목회자

이 제도는 목회자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누리고 있던 많은 특권과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목회자가 바뀌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제도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 평신도

이 제도는 일반 신도들에게 더 많은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목회자가 지고 있던 교회 운영의 책임을 많은 부분 평신도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할 일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 운영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초심을 잃고 열정이 식어지면 개혁의 피로감이 생기고 예전의 편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평신도들의 교회에 대한 애정과 믿음의 성숙이 없으면 이 제도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정성규(예인교회 목사)

1. 마중물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방문객’, 정현중

공감을 인간의 ‘제5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먹고, 자고, 배설하고, 사랑하고, 공감한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는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되는 것이고, ‘사랑’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공감은 그렇지 않다. 공감이 쉽지 않은 것은 소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소통이 어려운가? 단순히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현중 시인은 위의 시 ‘방문객’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 사람과 인사했다고, 말 몇 마디 했다고 그 사람과 소통했다고 할 수 없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 요즘 많이들 하는 페이스북 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한 공감과 소통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가 아닐까? 자신은 소통하고 있으며 공감하고 있다고 믿으려는 몸부림 아닐까! 그곳에서 소통은 실체 없는 위로받기이기에 안 타까울 때가 종종 있다.

2. 소통하시는 하나님, 불통하는 인간

하나님의 소통은 삼위일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난다. 목회신학의 편집장인 최원준은 하나님의 소통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성자·성령 간에 완벽한 소통을 이루신다. 예수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요 12:45),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고 말씀하신 것은 존재론적으로 성부와 성자 간의 동일본질을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론적으로 두 위격 간의 완벽한 소통을 통한 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또 성령께서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요 16:13),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14: 26)하실 것이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고전 2:10)하고 계신 것은 성부·성자·성령 간의 완전한 소통이 이뤄짐을 보여준다.”(목회와신학 2010. 6. [소통하는 목회 리더십])

이렇듯 성부·성자·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완벽하게 소통하셨다. 최초 인간 아담이 창조되었을 당시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창 2장). 그러나 다 아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거부하였다.

시편 139:1~4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과 여전히 소통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을 두려워했고, 결국 불통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거기다 창세기 5:3을 보면 “아담은 백 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 모양과 형상이란 타락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다.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더 어렵게 된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불통의 원인이 인간에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마태복음 13장에 언급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이다. 씨가 뿌려진 곳은 네 곳이다. 그 중에 세 곳은 열매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서만 백배, 육십 배, 삼십 배의 열매가 맺혔다. 여기서 ‘씨’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지만 그것을 받아드리는 사람은 일부라는 의미이다. 대다수의 인간이 하나님과 불통하고 있고, 소수만이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이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이다. 두 번째, 지금도 완벽한 소통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분께 질문(과연 그러한가?)할 때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행해야 한다. 소통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소통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소통은 실행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인교회에서 묵회하면서 나는 인간의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몸소 느꼈다. 때론 불통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통은 고통이었고, 좌절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과 나 :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심과 성령께서 인간의 질문에 가르침과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 소통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완벽한 소통을 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믿음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7: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져서(신사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뢰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라고 반응한 것이다.

먼저 ‘상고하다’(ajnakrivnw/아나크리노)는 ‘조사하다’, ‘검토하다’ 는 뜻으로, ‘자세히 공부’하는 탐구적인 자세를 의미한다. 베뢰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공부했다.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질문하고 자세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과정이고 인간과의 소통을 위한 준비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과도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인간과의 소통은 요원할 뿐이다. 또한 ‘상고하다’는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소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감성을 포함한다. 나의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노력이 ‘기도’이다.

성경은 인간을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롬 12:10)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설령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마 18:22)고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고 하셨다. 즉, 인간은 의심하기보다

이해해주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려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생각하고 상고하는 것은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님을 향한 ‘과연 그러한가?’는 개인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는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토론’이란 과정은 번거롭지만 우리에게 균형을 선물할 것이다.

(2) 나와 소통하기 : 인생여정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질문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소통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이 소통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자신만 몰랐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어떻게 소통해 오셨는가?

신명기 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다’(hk’z/자카르)는 ‘돌아봄’을 의미한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느냐’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필요한 것이 완벽한 정복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봄(기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 커다란 일을 놓고 과거를 뒤지는 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억하라’였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돌아볼 때 험난한 가나안 정복의 방향이 잡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왜 이리로 인도하셨는지를 상고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인교회는 [인생여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경험한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상상이기보다 역사이고, 순간이기보다 지속이다. 즉 지속적인 역사가 하나님과 나의 소통의 증거이다. 그것을 이끌어내는 방법(완벽할 수 없지만)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예인교회에서 [인생여정]을 사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성도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납득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음을 보고 그를 받아들이는 일도 가능할 수 있었다.

(3) 공동체의 소통

공동체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동체의 소통을 위한 대화가 때로 주장이 강한 분들에게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예인교회도 그랬다. 일반적으로 언론을 쥐고 있는 사

람들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 심분 활용한다. 그래서 모두의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뜻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은 여론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이다. 교회가 목회자나 언론을 독점하고 있는 몇 사람에게 의해 끌려 갈 때 가장 위험하다. 이럴 때 교회는 수동적이 되고, 교회가 하는 일에 교우들은 억지로 참여하게 된다.

만인제사장적 교회에서 교회가 목회자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달리는 것도 일종의 선동이요, 폭력이다. 모두가 제사장이기에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오히려 목회자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모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나서야 한다.

공동체의 소통에 가장 큰 도움이 되면서도 방해가 되는 것은 설교이다. 설교는 일방통행이 되기 쉽다. 따라서 설교가 일방통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예인교회는 셀을 통해 설교를 나눈다.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누기 위해서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다.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 ‘설교 나눔방’ (ajnakrivnw/아나크리노)으로 확대하려 한다. 주일 예배 후 설교에 대해 토론하고 싶은 교우들이 모여서 설교자가 어떤 이유에서 본문을 선택했으며, 말씀 묵상과 주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며, 어떤 자료를 읽고, 탐구했는지, 그리고 설교한 후의 깨달음은 무엇인지 등을 설교자와 함께 나눈다. 교우들의 질문과 의견을 들음으로써 일방적 설교가 아닌 소통 가능한 설교로 세우는 것이다.

교회의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도 필요하다. 원활한 공동체의 소통을 위해서는 목회와 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 예인교회는 매년 7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교회 행정을 맡긴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 목사가 참여하는 정기운영위와 운영위원들만 모이는 비정기 운영위 모임을 갖는다. 이곳에서 교회의 모든 행정이 논의된다. 목사도 그 결의에 따른다. 물론 교회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고, 전체 교우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일은 행정을 맡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은 교회가 한 쪽으로 쏠려 불통하기 쉬운 것들은 미연에 방지하고 더 잘 소통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이다.

일반적으로 심방은 목회자가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찾아가는 것이다. 심방은 교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방은 목회자가 교우를 보살핀다는 일방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예인교회에서는 ‘역 심방’을 한다. 깊은 대화가 필요한 교우를 목사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두 세 시간 정도 대화한다. 자신의 집이 아닌 목사의 집에서 하는 대화는 또 다른 소통을 만들어낸다. 결국 교우만 심방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교우들의 심방을 받음으로써 더 나은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4) 세상과의 소통

공동체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오히려 큰 혜택을 입기도 한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는 예인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장이다. 이 행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에게 건강한 교회의 존재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6년 동안 수백 명이 찾아와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나누었다. 세미나가 열렸던 초기에는 교회를 찾는 자들에게 소개할 만한 건강한 교회가 없어서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건강한 교회가 많아져서 전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소개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예인교회는 가톨릭이 운영하고 있는 부천장애인복지관에서 중식봉사를 7년째 하고 있다. 많은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해온 이 일이 예인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7년간의 신뢰는 가톨릭 신자가 대부분인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에게 예인교회를 사역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또 이들이 통로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해주었다. 가톨릭 신자들이 예인교회를 소개하는 신뢰 높은 통로가 된 것이다.

더불어 작년부터는 1년에 두 번 ‘지명방어’를 한다. 지명방어란 ‘신자로서 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의미한다. 예인가족들은 이 일에 강제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작년 2회(4가정), 올해 1회(4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이 일을 부천, 인천 동사무소와 복지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했다. 주로 차상위 계층에 속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방어’는 지난 고난주간, 어린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는 100여명이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예인교회는 매 주일 지역전도도 한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예인교회가 부천에 있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핵심이다.

4. 흘러보내야 할 생명수

요즘 7명의 가수가 경연하는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세대를 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후문에 의하면 아이돌 일색이었던 우리 가요계에서 그들의 활동이 주춤해 질 정도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는 가수다’ 이전의 가요계는 청소년이 좋아하는 가수와 7080이 좋아하는 가수는 엄연히 나뉘어 있었다. 그런데 ‘나는 가수다’ 이후에는 청소년과 7080을 넘어 노인들까지 공감하는 가수가 등장한 것이다. 가요계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소통의 관점에 볼 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하나, 사람은 남뉘노소 누구나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있다. 과장되고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에 관심이 있다.

둘, 진솔한 삶이란 지난 인생이다. 지난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교우들이 필요하다. “스트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말처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이다. 자신을 스펙으로 위장하지 않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내 놓을 때 소통은 시작된다.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백지영과 임재범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백지영 씨를 소개할 때 남들은 겪지 않은 큰 아픔을 겪은 가수이기에 애절한 호소력이 있다고 한다. ‘총 맞은 것처럼’은 그녀를 보여주기에 적절하다. 임재범 씨는 자신이 겪은 6년간의 조울증과 아내의 병과 관련된 아픈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공감을 얻고 있다. 강인한 인상에 비해 애통하는 그의 모습에 공감한 시청자는 ‘너를 위해’를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된다. 둘 다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 소통하고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5:11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세상과의 소통을 말할 때 매우 중요하다. 먼저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탕자인가? 큰 아들인가? 우리는 스스로 큰 아들이라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큰 아들이라는 생각은 탕자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최소한 탕자처럼 말썽은 피우지 않았으니 탕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자만이 스스로를 큰 아들 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불통하는 탕자나 큰 아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오히려 탕자보다 아버지와 가까이 있으면서 불통했으니 더 큰 잘못을 한 것 아닌가? 따라서 회개를 통한 진정한 자식으로 복귀는 탕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필요하다. 아니 큰 아들에게 더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세상과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성도라면, 자신이 큰 아들은 아닌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만약 자신이 큰 아들이라면 세상과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금한 마음으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고 시도한다면 분명 실망할 것이고, 그로인해 교회는 세상과 더 불통하게 될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이다. 이때 교회는 과감해야 한다. 교회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교회는 ‘이름 빼기’를 해야 한다. 모든 일에서 교회라는 이름을 빼고 순수한 봉사, 교제, 수고를 할 때 세상과 소통은 시작되고, 세상 속에서 교회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 10은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고 했다. 종의 이름이 드러나면 그가 한 일은 더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일하는 것이 세상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소통을 원한다면 상상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내가 직접 세상을 접할 때 소통은 시작되는 것이다. 가정, 직장, 마을에서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로 묵묵히 세상을 만나면 그 사람만의 소통 역사가 쓰여질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 역사 자체가 세상과 소통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될 것이다.

개혁교회네트워크와 함께 하는 공동체들

1. 교회다움 :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아닌 성경 속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하는

운영위원장 : 최인복 목사 : 민 걸

홈페이지 : churchdaum.com

예배장소 :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27-5번지(명동역 3번출구)

2. 너머서교회 : 차별을 넘어서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

운영위원장 : 최우돈 목사 : 안해용

홈페이지 : beyondchurch.or.kr

예배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75-3 중산초등학교 5층 강당

3. 동네작은교회 : 지역과 함께 어우러져서 소박함과 나눔을 실천하는

운영위원장 : 목사 : 김종일

홈페이지 : club.초재깡.com/onespirit

예배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981-33번지 서울파크빌라 지층

4. 디딤돌교회 :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

운영위원장 : 한진용 목사 : 윤선주

홈페이지 : didimir.net

예배장소 : 서울시 송파구 산전동 109번지 시각장애인복지관 5층 강당

5. 언덕교회 :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

운영위원장 : 김영식 목사 : 박창훈, 박종현

홈페이지 : unduk.or.kr

예배장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18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층 강당

6. 역삼청년교회 :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운영위원장 : 목사 : 최현락

홈페이지 : youthchapel.org

사무실 : 강남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1106호

7. 예인교회 :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

운영위원장 : 김태용 목사 : 정성규

홈페이지 : yein.org

예배장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복사골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

8. 함께여는교회 :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

운영위원장 : 박남용 목사 : 방인성

홈페이지 : opentogether.org

예배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6-6 파고다타워7층(파고다학원)

9. 새들녀교회 : 공동목회, 신학과 신앙의 일치, 사회참여

운영위원장 : 목회자 : 강병욱, 박태순

홈페이지 : sdnchurch.onmam.com

예배장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08-18번지 커피밀

10. 아름다운양지교회 : 함께 세워져가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운영위원장 : 이대근 목사 : 조석장

홈페이지 : cafe.daum.net/asan-church

예배장소 : 아산시 배방읍 복수리 1222번지

11. 행진교회 : 하나님 백성됨을 실천하는 교회

운영위원장 : 우종욱 목사 : 김승지

홈페이지 : cafe.daum.net/theActs2010

예배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증산동 1562-1 아카데미타운 5층 정철어학원

12. 무지개교회 : 그리스도인으로 민주시민이 되는 교회

운영위원장 : 방선숙 목사 : 박성진

홈페이지 : rainbowchurch.kr

사무실 : 서울시 은평구 진교나동 은평뉴타운 폭포동 403-1602호

13. 교회개혁실천연대 : 한국교회의 개혁과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지향하는

공동대표 : 박종운, 오세택, 백종국, 정은숙

홈페이지 : protest2002.org

외곽만을 때리다 마는 방식이나 개혁의 대상들에 의해 외쳐지는 한계가 분명한 이제까지의 한국 교회의 개혁 목소리에 실망한 뜻있는 성도들과 목회자에 의해 2001년 11월 24일 창립된 단체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한국교회의 개혁뿐 아니라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일과 교회가 민주적 정관을 만들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교회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과 몰상식한 한국사회문제에 정직한 입장의 표명과 항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갈 것입니다.

14. 개혁교회네트워크 : 건강한 교회, 함께 만듭시다!

공동대표 : 민길 목사(교회다움), 남기영 권사(예인교회)

운영위원장 : 최우돈 장로(너머서)

홈페이지 : cafe.daum.net/reformingchurch

개혁교회네트워크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회원교회 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을 전개하며, 교회개혁 시민단체를 지원 협력하고, 건강한 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과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 건강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활동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원제 :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고형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가운데-서신주님
그빛난영광 온하늘덮고 그찬송온땅가-득 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가운데-서신주님
주님의영광은 온 세상향하네 권능의팔을드-셨 네
주의 영광 이곳에-가득 해 우리 서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열-방주볼때까지 Fine
하늘 아버지-우릴새롭게하사 열방중에서-주를섬기게하시어-
모든나라일어나 찬송부리며-영광의주님을-보게하-소 서

Copyright (C) 2000 고형원. Used by Permission.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 라 내 영 혼 아 찬양하 라 내 영 혼 아 온
맘 과 정 성 다 하 여 다 찬 양 하 라

Remember Me

For SATB Choir and keyboard

Words and Music by

DEBORAH GOVENOR

최 윤 람 목사

기억하라

Freely $\text{♩} = 78$

In the night in which our Sav-ior was be-tray'd - He
에 수 깨 서 밤 리 시 던 밤 - 에 제
broke the bread - and to His friends He said: -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자 들 불 - 리 모으 시 - 고 - 떡 을 때 어 저 들 에 게
giv'n for you: - take and drink, this blood of mine is shed for you. - Do this
주 시 고 - 잔 을 채 워 저 들 에 게 주 시 며 - 나 의
al-ways to re-mem-ber me. re-mem-ber me. In the
몸 과 나 의 죄 - 니 기 억 하 라 에 수
night in which our Sav-ior was de-nied. - He bowed His head. - and to the
에 서 잠 히 시 던 밤 - 에 - 죄 를 예 짜 - 여 기 도
Fa-ther cried: -
하 셧 내 -
"If it be your will, let this cup pass from me: - if it
이 - 관 을 지 나 가 게 하 소 시 - 이 -
be your will, spare me this ag-o-o-ny. - In my dark-est hour will you re
고 몸 기 두 어 주 소 - 시 - 나 의 아 마 지 마 나 의
mem-ber me. re-mem-ber me
기 도 를 받 으 소 시
S.A. this
In the night in which my deep-est
의 심 과 고 외 에 빠 진
doubts are known: - you come to me - and I am not a-lone. - When I
밤 - 에 - 내 맘 에 주 - 님 찾 아 오 시 서 - 주 의
taste your blood and bod-y giv'n for me. - When I
몸 과 죄 를 내 게 주 시 며 - 갓 세
hear yoysr prayer in dark Geth-sem-a-ne. - then I know you will re-
마 네 기 도 들 리 주 시 니 - 주 가 함 상 함 께
dim. poco a poco
mem-ber me. re-mem-ber me - O Lord, re-mem-ber
하 실 을 기 억 하 라 주 - 볼 기 억 하
Sisong to the end
me. Re-mem-ber me.
라 기 억 하 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고형원 (원제: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 하늘의 하나님 - 공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하소서 -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이상들을 태워설 - 성경의 불 -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 타오르게 하소서 - 건리의 말씀 - 이 땅 새롭게 하소서 -

은혜의 강물 - 흐르게 하소서 - 성령의 비림 - 이제 불어와

오 - 주 의영 - 광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 주 님나 - 라 이 땅에 임 하소서

Copyright (C) 고형원 . Adm. By KC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세미나 공간 안내

중산초등학교 5층

체육전담실 (강사접대실, 본부석)		영어전담실 제4주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디딤돌공부방 제2주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계단		음료	음료
안내 데스크		식사대	식사대
체육실 제1주제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		강당 제3주제 : 함께 세워가는 교회	